

## 200자 안내

### 가슴에 새긴 한 세월

金光秀 지음

1923년 개성 제일공립보통학교에서 교사로 첫 발을 내디딘 이래 1969년 인천 창영국민학교 교장직을 정년퇴임하기까지 저자가 평범한 교사로서 지켜왔던 47년 동안의 교단 생활을 되돌아본 회고록. 교육일선에서 제자 양성에 힘쓴 한 교사의 체험과 지혜가 진솔하게 드러나 있는 글이다.

大華文化社 / A5신 / 332면 / 비매품

### 물레방아 내 고향

金承杓 지음

국회도서관 이사관 등을 역임하며 책과 더불어 반생을 살아왔던 저자의 두번째 수필집. 첫 수필집 「太白의 흙」에 이은 이번 책에서도 자신의 고향 강원도 정선을 향한 따뜻한 애정을 보여주고 있다. 고향의 독특한 문화적 정취를 살피는 한편, 우리 사회의 문제점에 대한 저자의 관찰도 함께 수록했다.

東逸出版社 / A5신 / 150면 / 2500원

### 다시 쓰는 편지

구영주 지음

「월간문학」 신인작품상 당선으로 시단에

등단한 시인 구영주씨의 수필집. 저자가 강릉 경포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며 학교와 가정 생활 주변에서 느꼈던 점들을, 바닷바람처럼 싱그럽고 섬세한 언어로 이야기하고 있다. 「우리가 만드는 조그만 진실」 「교정의 아이들」 등 60여편의 글들을 수록했다.

오상출판사 / A5신 / 252면 / 3000원

### 흙의 슬픔

金鶴泳 지음

지난 1985년 가스자살했던 재일한국인 2세 작가 金鶴泳씨의 작품집. 사랑으로부터 버림받은 한 인간의 슬픔을 나라 잃은 민족의 슬픔으로 상징화한 유작 「흙의 슬픔」을 비롯해 「昏迷」 「어려붙는 입」 「한마리의 羊」 등을 수록했다.

日善企劃 / A5신 / 326면 / 3500원

### 나폴레옹 불멸의 페이지

옥타브 오브리 엮음 / 李元馥 옮김

25세에 유명해졌으며 40세에 모든 것을 소유했고, 수세기 동안 프랑스의 광영을 상징해왔던 나폴레옹의 편지 및 논문·수필선집. 프랑스의 사학자인 편자 옥타브 오브리는 나폴레옹이야말로 위대한 문인이었다고 주장하며, 그가 남긴 서한문·역사연구·담화·구술·성찰 등에서 가장 뜻깊은 글들을 엄선 수록하여 문인으로서의 그의 면모를 보여주고 있다.

明成出版社 / A5 / 296면 / 3500원

### 저승서 만날 사람들

姜有星 지음

역사적 굴곡 속에서도 40여년 동안 일선경찰로 뛰어왔던 저자가, 자신의 반생과 경험담을 반추하여 책으로 엮어 냈다. 1931년 가난

한 가정에서 태어나 어렵게 지냈던 청소년 시절, 병아리 순경시절의 일화, 사회의 몰이해와 비판 속에서도 묵묵히 범죄와 싸워나갔던 경찰의 의지와 신념, 회환과 미련이 솔직하게 기록되어 있다.

佛敎出版社 / A5신 / 482면 / 4500원

### 눈까마스

宋基道 옮김

아르헨티나의 국가실종자조사위원회가 군부통치기간(1976~1982)에 실종된 사람들을 조사·분석하여 1984년 9월20일 알폰신 대통령에게 제출한 보고서. 9천권에 달하는 사례와 5만장이 넘는 서류들 중에서 적합한 사례만을 추려내 군사정권의 참혹함을 고발했다. 눈까마스는 스페인어로 '이제는 그만'이란 뜻.

書堂 / A5신 / 294면 / 3500원

### 깨어라, 여성

이우정 엮음

가난과 여성이라는 이중의 굴레 속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삶을 사회·정치적인 구조 속에서 살펴봄과 아울러 성서·신학적 차원에서 고찰하고, 토론문제와 실천을 위한 제안을 명시한 연구보고서. '에 큐메니칼 아시아 여성지도자 모임'의 성서연구위원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시·기도문·노래·사진과 함께 엮었다.

학민사 / A5신 / 164면 / 2000원

### 大家

김병홍 지음

일제시대 전북 김제에서 태어나 奉法家로 세계적 명성을 떨친 최영이라는 인물의 생애

를 다룬 실명소설. 무예를 통해 한국인의 기개를 세상에 떨친 그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작가가 흥미진진하게 재구성하였다. 한국의 태권도, 중국의 쿡후, 일본의 가라데 등을 흡수하여 독창적인 무술을 개발한 그의 편력이 다채롭게 펼쳐져 있다.

성현출판사/A5신/311면/3500원

### 한밤 文明論

김상일 지음

‘한’이야말로 민족정서의 고향이요, 근원적 믿음이라는 전제 하에 한국인의 무의식의 심층과 한국민족사의 전개과정을 밝힌 책. ‘한’을 原形으로 하여 ‘알’ ‘감’ ‘닥’ ‘뺨’ 같은 언어가 祖型으로서 우리 민족문화를 규정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다. 고고인류학과 발달심리학을 병행시켜 비교하면서 인류의 보편적 문명사 속에서 ‘한’이 어떻게 나타났는가를 고찰하고 있다.

지식산업사/A5신/274면/3500원

### 韓國監理敎史의 새 視覺

盧宗海 지음

한국기독교사에 있어서 교회설립과 복음전도 뿐 아니라 교육, 의료, 민족운동, 건국에 이르기까지 참여해왔던 감리교에 대한 역사적 연구. 한국근대사와 기독교사에 있어서 감리교의 역할을 분석했고, 아펜젤러와 스크랜튼의 논문을 번역·수록해 그들의 한국과 복음에 대한 이해를 살렸다.

풍만 / A5신 / 348면 / 5000원

### 韓國의 温泉과 藥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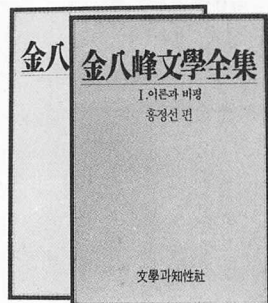
鄭鎭鉉·鄭京淑 지음

90여곳에 이르는 전국의 온천과 약수터를

#### 개인전집

### 金八峰文學全集(I·II)

홍정선 엮음



조직과 이론에 걸쳐 1920년대 카프문학의 맹장이었던 八峰 金基鎭의 전집 두 권이 문학평론가 홍정선교수(한신대)의 편집으로 간행됐다. 전4권 기획중 이번이 나온 것은 ‘이론과 비평’편 및 ‘회고와 기록’편.

제1권 ‘이론과 비평’편에는 朴英熙와의

유명한 ‘형식과 내용 논쟁’을 비롯, 팔봉의 문학사적 의미를 선명하게 드러내 주는 19-20~30 년대의 평문들을 ‘원론적 비평’ 논쟁적 비평 ‘시사적 현장비평’ 등으로 나누어 묶었다.

제2권 ‘회고와 기록’편은 팔봉 당대의 문단 분위기나 전반적인 경향을 언급한 글들과 함께 자신의 문필활동 회고와 주위의 동료 및 선후배 문인들에 대한 인물평들을 같이 묶어 현대문학 전공자들이 필독할 만한 자료적 가치가 돋보인다.

월북작가가 아니면서도 이른바 프롤레타리아문학의 주창자라 해서 그동안 문학사의 그늘에 매몰됐던 팔봉문학의 진면목을 두루 개괄할 수 있으며, 그를 통해 팔봉문학의 올바른 자리매김을 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제3권과 4권은 각각 ‘작품분석’ 및 ‘문학적 수필’ 편으로 엮을 계획이다.

문학과학사/A5신/각권500면안양/각권6500원

#### 이색출판

### 風味散策

崔勝範 지음



‘한국 전통의 맛과 멋을 찾아서’라는 부제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인이 즐겨 먹는 음식에 대한 수상을 담은 책. 저자는 시인이자 전북대 국문과 교수인 최승범씨. 「식생활」 「가정조식」 「남해화학」 등에 연재했던 ‘음

식수필’을 한자리에 모아 독자들로 하여금 눈으로 전통적인 음식맛을 즐길 수 있게 했다.

구성은 봄·여름·가을·겨울 4부로 이루어졌는데, 시금치·미나리·쑥·썬바퀴 같은 나물류, 딸기·수박같은 과일류, 복어·장어·메기 같은 어류에서 동치미·식혜·콩나물비빔밥·평양같은 구체적인 음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음식과 재료가 총동원되어 군침을 삼키게 하고 있다. 특히 저자는 각 음식물의 맛과 특성, 產地를 평면적으로 소개하는 차원을 벗어나 시인들의 시나 전해내려오는 속담, 선인들의 고사 등을 인용하여 한층 실감나게 그 정경과 미각을 맛볼 수 있도록 배려하고 있다.

서양문물의 침입에 따라 우리 음식도 하루가 다르게 예스런 맛과 멋을 잃어가는 요즘 우리의 식생활과 음식문화를 위해서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하나 / A5신 / 290면 / 3000원

직접 현지답사하여 각지의 수질·이용효과·수온은 물론 교통과 숙박시설, 역사적 사실, 주변 관광지 등을 충정리한 안내서. 각종 질 환 특히 만성질환에 잘 듣는 전통적인 민간요법으로 오랜 세월 이용되어 왔던 온천과 약수의 모든 것을 소개했다.

삼형출판사 / A5신 / 398면 / 15000원

## 소매점 창업과 사업성 분석

### 박춘엽 · 양갑모 지음

특별한 기술과 사업경험이 없어도 비교적 적은 자본으로 쉽게 투신할 수 있는 분야가 소매점 사업이다. 창업이 쉬운만큼 경쟁도 치열한 소매점사업을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 유통업증발건기법·사업성 분석·기존소매기업의 매입·프랜차이즈 사업 등을 실제 사례 분석에 기초하여 안내했다.

스물비즈니스 / A5신 / 304면 / 4800원

## 創業과 成長

### 폴 호겐 지음 / 편집국 옮김

개인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업을 어떻게 시작해야 하는가? 이미 사업을 시작한 사람은 어떻게 그 사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가? 소규모 사업으로 시장을 개척하고 치열한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을, 저자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알기 쉽게 안내한 책.

三雀이메아 / A5신 / 272면 / 3500원

## 日本事情

### 朴正義 지음

부제는 '알기 쉬운 일본상식'. 가깝고도 먼 나라인 일본에 대한 기초적인 지식을 소개하고 있다. 객관적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일본의 백과사전'이라 할 수 있다. 지리, 역사, 정

치, 사회, 경제, 산업, 문화 등 여러 분야에 걸쳐 유익하고 실용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일제 시대의 일본이 아닌 현재의 일본을 아는데 큰 도움을 주는 책이다.

同和文化社/A5/308면/4000원

## 소설 우리 예수님

### 김유규 엮음

우리 시대 한국인에게 있어서 기독교, 예수는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탐구한 소설을 모아 엮었다. 이범선의 「피해자」, 이창준의 「벌레이야기」, 백도기의 「어떤 행렬」 등 아홉 작가의 작품 14편을 수록하고 있다. 70년대에서 80년대로 접어들면서 본격적으로 대두한 기독교의 토착화, 사회참여, 인간해방의 문제가 우리 작가들에 의해 진지하게 탐구되고 있다.

청노루/A5/356면/3500원

## 스포츠와 정치

### 고광현 지음

우리의 체육현실을 사회과학적으로 분석, 비판한 스포츠 평론집. 저자는 80년대 우리나라의 스포츠는 학교체육, 사회체육에 기반을 둔 정상적인 발전의 길을 외면한 채, 극소수 대표선수들의 경기력 향상과 올림픽을 위한 과도한 투자로 이어져왔다고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푸른나무 / A5신 / 308면 / 3800원

### 계간지

## 著作權(88년 여름)

(특집) ▲저작권법과 민법과의 관계(황적인)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과 저작권법(곽중선) ▲공업소유권분야 관련법과 저작권법(송영식)

[시사논평] ▲한·미 지적소유권 협상의 현황과 전망(윤희창)

[판례] ▲舊저작권법상 귀속권 등의 침해(허희성)

[시론] ▲저작권위탁관리업의 위상정립을 위한 제언(이중한)

[자료] ▲저작권 일지 ▲저작권 관련기사 색인 ▲문화공보부 저작권 등록현황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B5 / 96면 / 2000원

## 불교문학 (88년 가을)

[논문] ▲매월당의 방랑과 비판정신(김용구) ▲보조사상의 현대적 의미(강건기) ▲밀교에 대한 올바른 인식(박태화) ▲변혁운동과 불교사상(임현영)

[서평] ▲불교정신의 시적 형상화(이남호) ▲한국사회의 정신병리학적 진단(김승욱) ▲무거움과 가벼움(정효구)

[젊은 평론가 7인의 시각과 논리] 구모룡 / 김명인 / 박덕규 / 백진기 / 장석주 / 정과리 / 홍전선

[소설] 고은(연재) / 한승원 / 현길언 / 지요하

[여류시특집] 김승희 / 문정희 / 신동춘 / 허영자

[시] 조정권 / 강우식 / 김광규 / 김명수 / 박희진 / 송수권 / 이성복 / 이태수 / 이준섭

[제1회 불교문학신인상 당선 작품집] 무소의 빨처럼 외 47편

불교문학사 / A5신 / 426면 / 3800원

### 논문집

## 80년대 한국인문사회과학의 현단계와 전망

[기조발표] 민족적·민중적 학문을 제창한다

(김진균)

▲제1부 한국 인문사회과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전후 한국경제학연구의 동향과 과제(이병철·윤소영) / 현대한국사학의 동향과 과제(이세영) / 한국 사회현실과 한국정치학(정해구) / 사회학 연구의 동향과 과제(임영일) / 한국여성연구의 자성적 평가(지은희·강이수)

▲제2부 한국사회의 역사적·구조적 분석: 80년대 한국경제의 구조와 성격(김재훈) / 한국의 정치변동에 관한 일 연구(정관용) / 현행 토지제도의 성격(장상환) / 중간계계층의 구성과 민주변혁에서의 지위(서관모) / 1930년대 초반기(1930~33) 사회주의자들의 민족개량주의운동 비판(지수걸) / 미군정기 좌익 여성운동 연구(이승희) / 현대한국사회와 사회운동(이종오) / 모순·이데올로기·과학(김재현) / 대중문화의 모순과 그 지양을 위한 시론적 접근(조항제) / 한국사회 지배이데올로기의 형성과 재생산(한지수) / 민중문학운동의 목표와 방법문제에 대하여(조정환)

역사비평사 / A5신 / 428면 / 5300원



### 사진집

## 골목안 풍경

김기찬 사진



동양방송국 영상제작부장을 역임하고 현재는 한국방송공사 촬영부 제작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사진작가 김기찬씨의 작품집. 서울 행촌동, 중립동, 천호동, 공덕동, 만리동 등 여러 동네의 서민들의 삶을 카메라에 담았다.

급변하는 서울의 한 귀퉁이, 다다다다 붙은 납작한 집들과 그 사이로 난 울퉁불퉁하고 구불구불한 좁은 길, 햇살 비치는 곳에 나와 즐고 있는 노인들, 동네 조무라기들과 강아지까지 모여 뛰노는 모습, 이러한 가난하고 구질구질한 풍경이 작가가 찍은 사진 속에 때로는 정겹게 때로는 처연하게 포착돼 있다. 고층빌딩과 아파트에 둘러싸여 잊혀져가고 있는, 중산층 이상의 시민들은 실감할 수 없는 이웃의 생생한 삶의 현상이 미화되거나 왜곡되거나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작가의 카메라에 '붙들린' 것이다.

그늘지고 웅색한 골목길, 그곳에 스며있는 '눈물보다 더 순수하고 슬픔보다 더 진한 애정'이 충실하게 재현된 사진집이다. 가난한 이들의 삶이 꼭 서럽고 약삭스름기보다는 이처럼 넉넉하고 푸근할 수도 있다는 점을 깨닫게 해준다.

열화당 / B5변형 / 152면 / 20,000원

### 화제의 책

## 보고서 보고서

안상수 · 금누리 편



북디자인 분야에서 많은 활약을 해온 안그라픽스에서 최근 「보고서 보고서」라는 매우 이색적인 예술전문지를 창간했다.

“문화예술 각 분야의 실험적 발언과 창작을 수용하여 문화발전에 기여하고자 한다”

는 창간목적처럼 타블로이드판형에 혁신적인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다. 눈으로 '읽는 잡지'가 아니라 본격적으로 '보는 잡지'가 등장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문화변동을 짐작할 수 있게 해준다.

창간호에는 소설가이자 번역가인 安正孝씨, 비디오 아티스트 白南準씨, 르브라이터 조갑제씨 등에 대한 인터뷰가 실려 있으며 사진(구본창), 만화(김경렬), 광고 등에 있어서도 기존 방식에서 과감히 탈피한 실험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집 「1950년대」는 정비석의 「자유부인」의 한 대목을 인용하는 한편 45년부터 60년까지 연도별로 '복식' '봄' '유행가' '유행어' 등을 밝히고 있고, 이울곡이 23세때 과거에 장원한 논문 「天道策」과, 신문학 초창기 「청춘」誌에 실린 「너 참 불쌍타」(빅토르 유고의 「레미제라블」의 번안)를 전제하였다. 안그라픽스 / B4 / 64면 / 5000원